

2) 남성복

남성복의 주된 색상은 검정색이나 흰색이었다. 특히 서민층의 노동자들은 검정색을 많이 입었다. 초기에는 한복을 입다가 나중에는 양복을 입었다. 남성의 복식변화가 여성보다 더 빠르고 유행에 대한 태도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상 의

남자들이 주로 착용했던 상의는 저고리·죽삼·등거리·등지개·토시 등이다.

저고리는 여름에는 삼베 적삼, 봄·가을에는 무명(명베) 소재를 사용하였고, 겨울에는 겹저고리나 솜을 넣어 누벼서 입었다. 상류층에서는 양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적삼 속에 입어 옷과 몸이 땀으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죽삼·등거리·등지개는 여름옷이다. 노년층 남자는 모시나 삼베로 등지개를 만들어 입는데, 등지개 모양은 등과 가슴만 대고 소매를 없이 하여 러닝 대응으로 입었다. 또 대나무로 만든 죽삼이 있었고 등나무나 칩으로 만든 등거리가 있었다. 토시는 여름에는 대나무 토시가 있었고 겨울에는 솜토시가 있었다. 여름에는 소매 속으로 넣어 땀이 차는 것을 막고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소매 위에 끼었다.

(2) 바 지

보통 봄·가을에는 명베로 만든 바지를 입었고 여름에는 훌바지·바지(중우)·무잠뱅(작업복으로 짧은 반바지 형식), 겨울에는 접바지(솜바지)를 입었다.

(3) 포 류

남성들이 겹옷으로 착용했던 포류는 두루마기와 도포(도복)가 있다.

두루마기를 겹옷으로 입게 된 것은 1884년(고종 21) 갑신외국개혁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도포를 입었으나 보다 더 활동적인 의복이 필요해짐에 따라 넓은 소매나 뒷자락이 덧붙은 도포보다 간편한 옆이 터진 중치막을 입다가 더 편리한 두루마기를 입게 되었다. 두루마기는 소매가 좁으며 옆이 두루 막힌 옷이라고 해서 두루마기라고 불렀다고도 하고, 몽고어의 쿠루막치(xurum akči)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다. 두루마기는 예복으로 사철 입어야 하는 옷이었다. 두루마기를 입어야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었으며, 집 안에서도 손님을 접대할 때는 으레 두루마기를 입어야 했다. 종류에는 하절에 백이두루마기와 홀단두루마기, 춘추절에 겹두루마기, 동절에 솜두루마기 등이 있다.

여름에는 삼베, 겨울에는 가는 명베·옥광목으로 만들어 입었고 나중에는 양복기지 바지와 비슷한 옷감으로 만든 시루두루마기를 입었다. 처음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었으나 나중에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요즘 두루마기를 생략하는 우리와는 달리 결혼을 한 모든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도포는 일명 '큰옷'이라고도 하여 두루마기 위에 걸쳐 입고 술띠를 매었다. 도포띠는 젊은 사람은 남색이나 옥색을, 나이가 많은 사람은 흰색을 사철 맨다. 도포는 소매폭이 너무 넓어서 양팔을 벌리고 서면 그 끝이 무릎 부근에 이르렀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벌 정도밖에 없었으며 예식이나, 제사, 시제 때 입었다.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서 검은색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4) 속 옷

1940~1950년대의 한국 실정에서는 태반이 가난했기 때문에 속옷에 격식을 차려 입지는 못했다. 상의는 등기기(현재의 나시 형태), 무잠배기(무잠뱅)를 입고 하의는 거의 입지 않았다.